

##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새로운 성장 기회로 민관이 함께 만든다

-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성능 진단 서비스 등 8대 유망 서비스 모델 제시
- 환경부·산업부·국토부와 업계가 함께 협업하는 ‘민관 공동 협의체’ 출범

환경부(장관 한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댄다.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는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된 이후부터 충전, 정비·교체, 탈거·운송, 재제조·재사용·재활용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각종 서비스를 의미한다. 아직은 관련 산업이 본격 성장 전이나, ‘전 세계(글로벌)’의 전기차 보급 확산과 함께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높은 경쟁력을 토대로 미래 배터리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6월 18일 △임상준 환경부 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제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2차관이 공동 주재하는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 간담회’가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다.

간담회에서는 업계가 직접 선정한 8대 유망 서비스 모델이 제시된다. 이 모델에는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춰줄 구독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 △배터리를 더 오래·안전하게 쓰도록 돕는 성능 진단 서비스, △전기차 배터리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탄소 크레딧 거래 서비스와 전력 거래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3개 부처와 업계가 함께하는 ‘민관 공동 협의체’도 이날 공식 출범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업계는 8대 유망 모델을 포함한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민관 공동 협의체’는 업계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상시 소통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업계는 이 협의체를 통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성능평가 및 운송·보관 등 공통의 기준 마련, △배터리 교체 및 이동형 충전 등 유망 서비스 모델에 대한 실증사업 추진 등에서도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협업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환경부는 이동식 전기차 충전서비스와 전기이륜차의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설치 사업 등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기반시설(인프라)을 확대하고 관련 분야 산업 성장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전 행사로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배터리와 공동 주최하고, 기업들이 직접 자사의 서비스 사업 모델을 소개하는 비즈니스 포럼이 열린다.

- 붙임 1.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 간담회」 개요.
- 2. 업계선정 배터리 서비스 8대 유망 비즈니스 모델. 끝.

담당 부서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책임자	과 장	박재정 (044-203-4260)
		담당자	사무관	이기현 (044-203-4266)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17)
		담당자	사무관	홍예표 (044-201-3846)
담당 부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80)
		담당자	사무관	김형래 (044-201-7384)



## 붙임 1

#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 간담회」 개요

## 1. 개최 배경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배터리의 생애주기별 서비스(BaaS)\*’가 미래 유망 산업으로 부상 →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협력 필요

\* Battery as a Service: 배터리 리스 → 충전 → 재사용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서비스

## 2.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6.18(화) 16: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EC룸(서울)

\* 간담회 사전행사로써 「비즈니스 포럼」도 함께 개최(14:00~15:50, 협회 주관)

- 참석 :

- (정부) 환경부(차관), 산업부(제1차관), 국토부(제2차관)
- (민간)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SK온, 기아자동차, 피엠그로우, 민테크, 티비유, KG모빌리티, 현대글로벌비스, 현대캐피탈, 포엔, 브이피퍼랩, 피트인, 이앰피에스, 배터리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회

- 세부계획 :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사전 행사	14:00~15:50 (110')	비즈니스 포럼 (개별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발표)	
간담회 참석자 이동 (중회의실 A → EC룸)			
본행사 (간담회)	16:00~16:01 (1')	개회 및 내빈소개	
	16:01~16:07 (6')	인사말씀 (산업부 → 국토부 → 환경부 차관)	
	16:07~16:14 (7')	8대 유망 비즈니스 모델 소개	
	16:14~16:20 (6')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 위한 '민·관 공동 협의체' 출범식	· 기념 촬영
	16:20~17:00 (40')	참석자 토론 (참석자별 2.5분)	

※ 공개 범위 : 사전행사 및 본행사(협의체 출범식까지)

No.	비즈니스 모델	개념
1	전기차 배터리 성능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에 데이터 수집장치를 부착해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배터리 성능 및 잔존수명 등을 평가</li> </ul>
2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배터리 구독 및 교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 등의 배터리를 리스 형태로 빌려서 사용하고 매월 사용료를 지불</li> <li>• 리스용 배터리는 필요시 교체해서 사용</li> </ul>
3	탄소 크레딧 거래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한 운수 사업장을 대상, 탄소 크레딧 발급 대행</li> <li>• 자발적 탄소시장 內 탄소 크레딧의 거래를 지원</li> </ul>
4	재제조 배터리 진단 및 평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제조 완료 배터리에 대한 성능, 신뢰성 및 안전성 등을 인증</li> </ul>
5	이동형 충전기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동성이 있는 화물 차량에 ESS를 탑재해 구축 아파트, 휴게소 등 충전 사각지대로 이동하며 충전을 지원</li> </ul>
6	전력 거래 플랫폼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 V2G 등 전력 유연성 자원을 활용해 가상발전소(VPP)를 구성하고, 전력시장 거래 등을 대행</li> </ul>
7	배터리 회수·운송·보관 등 로지스틱스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터리 수요/공급 관련 실시간 Data를 수집/분석해 최적의 운송·보관 등 유통 솔루션을 제공</li> </ul>
8	금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가치를 先공제 하여, 전기차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li> <li>• 전기차 배터리 성능 관리를 통해 잔존가치를 높이고, 전기차 리스료에 반영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li> </ul>